

논리로 이해하는 로마서 (1)

로마서 강해 1, 2 (유익회 목사)를 정리 및 보충한 것입니다

[로마서 서론: 로마서는 어떤 책인가?]

흔히 말하기를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성경 한권 한권이 다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책 중에서 왜 다른 책이 아닌 ‘로마서’가 복음의 진수를 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이러니 하게도, 사도 바울과 로마교회가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서의 경우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이며, 바울은 그 교회의 필요성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서의 내용은,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긴 것과 여러가지 도덕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지를 설명한 편지가 바로 ‘고린도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편지 대부분은, 바울이 그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향한 ‘맞춤형 내용’으로 편지를 쓴 것들입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다릅니다. 로마교회는 누가 어떻게 개척하였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아직 로마에 가 본적이 없다는 사실인데, 따라서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에, 바울과 잘 아는 사람 몇몇이 로마에 살고 있기는 했지만¹,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 대부분을 알지 못했으며, 성도들 역시 바울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잘 모르는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형편에 맞는 ‘맞춤형 편지’가 아닌, 객관적 입장에서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복음 해설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를 쓴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 한가지는 선교 후원입니다. 당시 바울은 스페인(서바나)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로마 교회에 선교 사역의 후원을 요청하면서 쓴 ‘**선교 후원 요청서**’가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새번역] 롬15:23 .. 내가 스페인 (개역: 서바나)으로 갈 때에,
24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 보고, ...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 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15장에서 말하기를, 자신이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로마를 들려서 선교 후원을 받기 원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입장에서,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교회에 선교 후원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자신이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신앙을 믿고 있다. 이 복음을 들고 스페인으로 가려 하니, 함께 힘을 합하여 복음을 전하자’라고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사도

¹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고린도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후,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던 사람들인데,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로마에 되돌아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도행전 강해 30 (유익회 목사)18장[1]’ 참조)

바울은 그 내용을 로마서에 담게 되었고, 이 선교 후원요청 편지는 ‘복음의 진수’가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1~3차 선교 여행] 바울의 1~3차 선교 여행의 베이스 기지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² 안디옥 교회의 도움으로, 로마 제국의 동쪽이었던 지금의 그리스와 터키(튀르키예)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서쪽(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계획하면서, 로마 교회가 서쪽 복음화의 베이스 기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³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 어거스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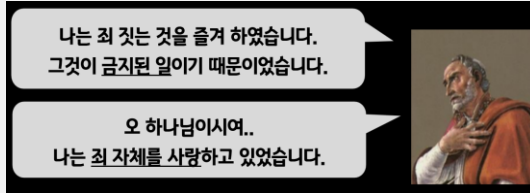
로마서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어거스틴, 루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² 위 지도의 지역 명칭은 현대의 명칭입니다.

³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던 당시에, 스페인은 ‘땅 끝’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중에서도 어거스틴(AD 354 ~ 430)의 회심 스토리는 교회사에서 매우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매우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저서 ‘참회록’에서 아래와 같이 고백할 정도로 죄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회개하고 싶은 마음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내일, 내일’해야 하는가? 왜 지금은 안되는가? 왜 지금 나의 추한 죄를 청산하지 못하는가?” 그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 치면서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집어 들고 읽게 되었는데, 그 구절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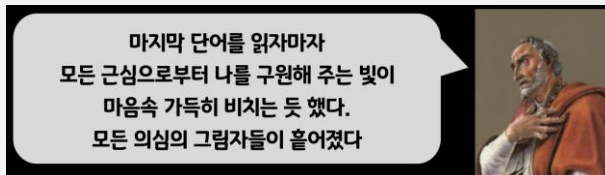
롬13: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회록에서 아래와 같이 고백하는 그는, 참으로 ‘로마서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는 참으로 복음의 진수를 담은 책이고,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로마서를 통하여 변화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자칫 로마서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복음서보다 더 우위에 놓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⁴ 신앙과 신학의 기준을 로마서에 두고, 모든 것을 로마서를 통해 해석하다 보니, 심지어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복음서를 해석하는 것조차 로마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⁵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며 자칫 잘못된 해석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은 당연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복음서를 기준으로 로마서를 해석해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로마서의 본문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본문 연구]

1:1 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②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② 평범한 종이 아닌 특별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⁴ 물론 성경의 어느 한 책이 다른 책들 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것에는 모든 신앙인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심정적으로’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⁵ 이럴 때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나 하면, 로마서의 핵심인 ‘오직 믿음’과 그로 인해 주어지는 ‘은혜와 구원’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자칫 예수님이 행하시고 강조하셨던 실천적 사랑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개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굳이 스스로를 ‘사도’라고 밝히는 것은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장관이 ‘나는 공무원일 뿐 아니라 장관이다’라고 너무 자주 밝힌다면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록한 거의 모든 편지의 첫 부분에서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고전 1:1)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고후 1:1) 사도 된 바울 (갈 1:1) 사도 된 바울 (엡 1:1) 사도 된 바울	(골 1:1) 사도 된 바울 (딤했 1:1) 사도 된 바울 (딤후 1:1) 사도 된 바울 (딤펴 1:1) 사도인 바울
---	--

로마서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밝힌 것과 다른 서신서에 ‘사도’라고 한 것은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론에서 언급한대로,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사도 바울을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로마서에서 말한 ‘나는 사도로 부름 받았다’라는 설명은, 자신을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사도임을 밝히는, 즉 자신을 소개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다른 서신서들은 대부분 자신이 목회했던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므로, 편지의 수신자들은 바울이 사도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까지도 ‘나는 사도’라고 강조해야 했을까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는지’ 끊임없이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녀 본 적도 없었고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인데, 하루 아침에 회심을 했다고 하니, 그런 의심을 받는 것도 당연할 것입니다. 사도가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즉 제대로 사역을 하려면 ‘사도의 권위’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

바울도 할 수 없이 거의 매 편지 마다 자신이 사도임을 밝혀야 했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이 사도임을 강조하려고 했던 이유는 ‘나 이래뵈도 사도야’라는 의미로, 즉 ‘대접을 받기 위해서’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의도는 ‘내가 사도로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사역의 권위를 인정해 달라’는 의미에서 강조한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⁶

바울이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종은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종이다. 즉 일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맡은 일은 바로 사도의 일이다’라는 의미로서, 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②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소개한 것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도 마찬가지로 의미입니다. 사도가 된 것은 대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자기 소개는 ‘권위가 아닌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울은 역시 철저히 사역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⁶ [비교1: 베드로전/후서] 베드로 전/후서에서 베드로도 각 1장1절에서 자신이 사도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도라고 한 이유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의 사도적 권위가 의심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사도임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굳이 자신이 사도임을 밝힌 이유는, 베드로서가 매우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으므로, 베드로 자신이 누구인지 소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도임을 서두에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 2: 요한서신] 반면에 요한2서와 3서에서, 요한은 자신을 사도라고 하지 않고 ‘장로’라고 소개하는데, 그 이유는 요한서신의 주제 및 성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1,2,3서 강해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은 2절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아픈 과거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예언)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의 최고 전문가라고 자부했던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아 보지 못한 이유는, 성경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옳은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관점에 더 빠져들 뿐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므로(딤후 3:16), 그 해석 역시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야만 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비로서 구약의 기록들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1:3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 ②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영적/육적으로 그리스도(메시아)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입니다.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기에 구약의 예언을 충족하셨고, 영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메시아)로 입증되신 것입니다.

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거의 바울처럼 **육적인 눈**으로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 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

은 객관적 사실이며, 예수님의 죽보를 ‘육신의 눈으로’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것은, 육적인 시각 만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기에,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만 그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⁷ 아마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이 구절을 써내려 갔을 것입니다.

10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새번역] 13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13절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바울은 로마에 방문하기 위해서 여러 번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길이 막혀서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도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능력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아니면 길이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방문을 위해서 여러 번 노력했던 것을 로마 교인들이 잘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마도 오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을텐데, 로마 교인들 중에서는 ‘선교사가 후원을 요청하면서 왜 한번도 로마에 얼굴을 안 비치는

⁷ 물론 예수님은 육신으로도 부활하셨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 부활의 능력이 ‘영적인 능력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만 부활을 보는 사람들은,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그 부활을 목격한다 하더라도 결코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그런 예는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13절에서 (새번역)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⁸라고 말하면서 로마 교인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직도 로마 방문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는 여전히 로마를 방문할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표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입니다. 인간들이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이 열리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인데, 바울의 이 기도는 후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인간들이 보기에는 험난한 길이지만,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로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 바울의 로마 방문: 로마서 이후의 이야기>

[1] 바울은 왜 로마를 쉽게 방문하지 못했을까?

- ① AD 1세기에 로마를 방문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여행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배를 타야 했는데, 그 뱃삿이 매우 비쌌습니다.
- ②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도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선교 여행 기간 중에 로마서 작성)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⁹ 유대인들은 그가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목숨까지 위협하며 핍박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 위협의 정도

⁸ 개역 성경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중부정으로 번역하였는데, 새번역 보다는 이 번역이 원문에 더 가깝습니다. 이중 부정은 주로 강조의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던 것을 로마 교인들이 잘 알아주기를 강하게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⁹ 아마도 AD 58년 경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행23:12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13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마흔 명이 넘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에게로 보내면서 그를 호위했는데, 그 호위병들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새번역] 행23:23 천부장이 ..명령하였다.. “보병 이백 명과 기병 칠십 명과 창병 이백 명을 준비하여라.”

바울 한 명을 호송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 470명이 동원되었으니, 그 위협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를 극도로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밀집해 있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모든 곳에 많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바울이 혼자 로마로 여행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도,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이 당장 로마로 올 수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2]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린 ‘좋은 길’

무려 470명의 로마 군인들의 호위를 받아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거기서 2년 동안 구금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을 활용하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을 요청하는데, 당시의 황제는 바로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결국 로마를 방문하게 되는데, 로마 군인의 호송을 받아 로마로 가게 되면서, ① 돈 한푼 들이지 않고 ② 호송 군인의 신변 보호를 받으며 위협 없이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린 ‘좋은 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열린 길은 소위 말하는 ‘꽃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모멸과 수치를 감수해야 하는 ‘죄수의 길’이며, 배를 타고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도 넘기게 되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 지라도, 그 길이 주님이 열어 주신 길이 확실 하기에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중에 극심한 풍랑을 만나, 모두가 삶의 희망을 잃었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 27:24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

바울을 황제 앞에 보내기 위해서 그 배의 모든 사람을 살려주시겠다는 이 천사의 말씀은, 바울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 없이 ‘꽃 길’을 걸으며 로마로 갔었다면 결코 누릴 수 없었을 은혜와 감격을,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누리는 것입니다.

온갖 역경을 뚫고 그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예전에 그가 보낸 로마서를 읽고 은혜 받은 로마 교인들이 그를 마중나와,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행 28:15 그 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린 ‘좋은 길’을 확인하는 감격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출판 예정 중인 본 문서는, 신학생들을 위해 무료 PDF로도 제작되어 보급됩니다.
이 사역을 후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642-910097-82405 (헤세드문서선교회)

무료 PDF는 헤세드교회 웹사이트 (<http://hsdch.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